

“인쇄업 어렵네요”



인쇄사 규모도 크고 공장도 잘 정돈돼 있으며 30여년간 인쇄업을 경영해 온 인쇄업계 안팎에서 ‘첼튼맨’으로 불리우는 인쇄인 한 분이 요즘 깊은 고민에 잠겨있다.

회사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이 분은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현시점에서 인쇄업을 정리하고 노후를 유유자적하며 여생을 편하게 지내느냐 아니면 인쇄업에 올인해서 인쇄인으로서 생을 마감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햄릿이상의 고민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한다.

가족회의 끝에 인쇄업에 모든 것을 쏟아붓기로 결론을 내린 이 분은 잘 먹고 편하게 사는 것만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심정을 굳혔다고 한다.

그러면서 가급적 편법과 부당한 일, 동업자를 속이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해 왔는데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섭섭함을 털어놓는다.

인쇄인들이 엄살(?)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최근 체감 일감이 크게 줄어들었다. 용지나 잉크 공급량 통계를 보면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전체적인 인쇄물량은 지난해 보다 줄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나 인쇄시설의 대량도입 등에 따른 생산능력의 증가로 개별 인쇄사가 느끼는 경기는 썰렁할 수밖에 없다.

최신시설을 갖추고 재무구조도 탄탄하며 부가가치 높은 인쇄물을 생산하고 있는 S사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물량이 30% 가까이 줄었다고 하며 거래처의 당부(?)로 인쇄요금 인상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어 이슬이슬한 수준의 마진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일반 국민이나 심지어

언론에서조차 인쇄업이 상당히 남는 장사를 하는 업종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50만원이나 100만원정도 하는 전단인쇄물의 경우 가끔 절반 가까이 남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특수한 사례에 속하며 기획물이 포함되지 않은 인쇄물은 그 마진폭이 그야말로 뻘한 수준이다.

덤핑 논쟁만해도 그렇다. 회사의 규모, 원자재 구입조건, 생산비 부담 차이 등 때문에 원가를 획일적으로 매길 수는 없는 일이지만 거래처가 제시하는 예정가격 보다 터무니없이 싼값으로 인쇄물을 가져가는 것은 분명 문제이다.

전자입찰 방식에 생각없이 뛰어 들거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칫 덤핑의 보편화(?)가 자리 잡지 않을까 우려된다.

가급적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나누고 글을 쓰려고 하지만 인쇄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지쳐있다.

겉으로는 잘 나타내지 않지만 ‘통장이 텅 비었다’ 든가 ‘몇달째 사원 월급을 주지 못했다’거나 ‘그동안 헛 살았다’라는 등 힘든 속내를 털어 놓는 인쇄인을 만나면 덕담조차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에 젖어들곤 한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묵묵히 正道를 걷는 인쇄인이 업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점잖고 사려깊은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 오늘의 희망이라고 하겠다.

성수기라고 해서 예전처럼 별나게 바쁜일도 없다. 점점 차가워지는 북풍에 몸과 마음을 단단히 가다듬고 새로운 도전을 해 보는 길외에는 뾰족한 해결방안이 없는 것 같다.

(오세익 · 편집주간)

“
 몇달째 사원 월급을 주지 못했다’거나 ‘그동안 헛 살았다’라는 등 힘든 속내를 털어 놓는 인쇄인을 만나면 덕담조차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에 젖어들곤 한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묵묵히 正道를 걷는 인쇄인이 업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점잖고 사려깊은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 오늘의 희망이라고 하겠다.

”